



한마디 칼럼



혼교야키와 신세이야키



신세이야키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
소메쓰케 산수도 물병
19세기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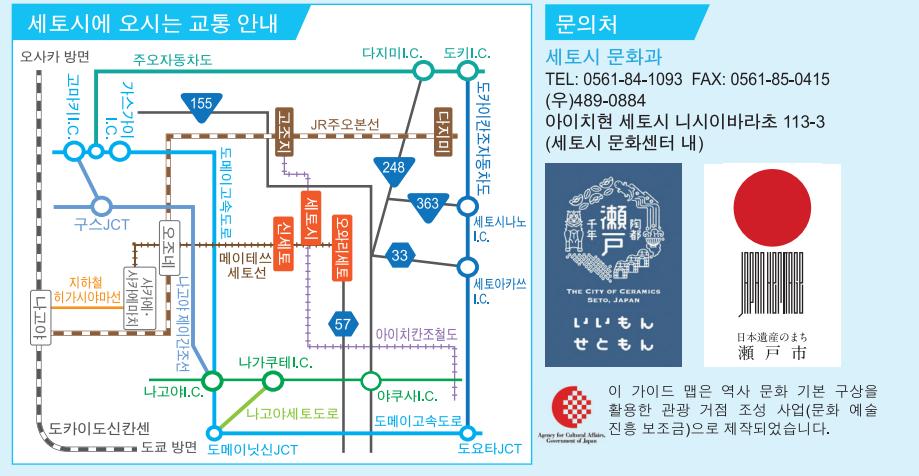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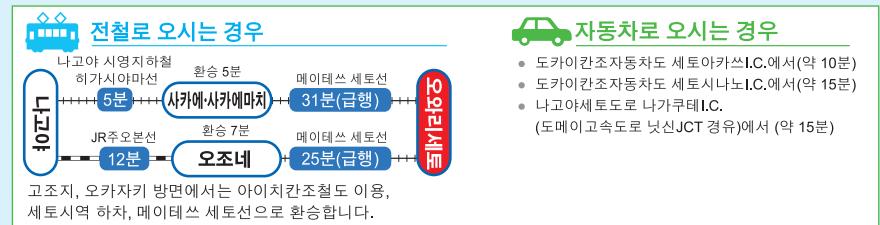
세토에서 긴 세월에 걸쳐 제작되어 온 도자기는 세토 본래의 일이라는 의미에서 혼교야키(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도자기)라고 불렸습니다. 한편, 도자기로부터 800년이나 늦게 가토다미기치가 전한 자기 제법에 따라 급속히 세토 자기 생산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새로운 일이라는 의미에서 신세이야키(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된 자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토모노 마을 스에도·세토

아이치현 세토시는 나고야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에 위치하며, 주위가 해발 100~300m의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기후가 온난한 도시입니다.

양질의 도토가 풍부하며 세토시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세토모노”라는 도자기의 대명사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인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 “세토모노 마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선인들로부터 계승된 “역사”, “전통”, “문화” 그리고 풍부한 “자연”이 지금도 세토의 삶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한가로이 차분하게 둘러보는 **세토 지도**

도소의 연고지를 둘러보는 코스

일본 유산의 도시 세토시

세토를 알아보는 테마별 가이드①

